

# 함평군 샤인머스켓, 캄보디아 첫 수출

###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 샤인머스켓 7.2톤 수출단지 조성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한 포장재 지원 등



함평군의 지역특화작목인 '함평 샤인머스켓'이 캄보디아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26일 함평군은 "함평 샤인머스켓 캄보디아 수출 상차식이 이날의 함평군수와 함평꽃무릇 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 김용오 대표, 수출 업체 및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해보면 대장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은

아시아 국가 중 네 번째이며 지난 7월 이상의 군수의 캄보디아 출장을 통한 교류 협약의 성과다.

수출 계획 물량은 총 7.2톤으로 함평꽃무릇 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평균 18브릭스(Brix) 이상의 고품질 포도를 수출하며 이번 1차에는 480kg을 상차했다.

군은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공급량 급증에 대비해 샤인머스켓 수출단지 조성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지원 등 '함평 샤인머스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함평 샤인머스켓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 전략작목으로 확대 재배중인 샤인머스켓 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신안 홍도에서 섬 불불락 축제 성황리에 마쳐

신안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홍도 마을광장에서 개최된 '섬 불불락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섬 불불락 축제는 8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수산물 깜짝 경매, 불불락 버거 요리 시연, 유람선 섬 투어, 불불락 선상 낚시체험, 불불락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특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숯불로 구운 불불락구이를 시식할 특별한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축제 기간 불불락 20% 할인판매로 신안군 불불락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기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맡겨 방사능 불검출 결과를 받았으니 안심하고 신안군 수산물을 드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아름다운 가을하늘 속

신안=이덕주기자



에서 관광객들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신안군은 연중 내내 다양한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맛있는 수산물을 즐기고 신안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내년에도 수산물 축제를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안군은 5월 홍어, 갯다리, 낙지 축제, 6월 병어, 간재미 축제, 8월 민어, 9월 불불락, 왕새우, 우럭 축제, 10월 새우젓 등 계절에 가장 맛있고 많이 잡히는 시기에 맞춰 지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무안군, 미식관광·지역 특산물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0월 17일까지 무안군 홈페이지 통해 접수 가능

무안군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우수제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 분야는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지역대표 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 2개 분야이다.

무안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무안군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접수, 우편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두 차례의 제안심사를 거

쳐 12월 중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부상이 지급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렴된 참신한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평소 무안군정에 관심이 많고 기발한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친환경선박 기술 선도 거점으로 우뚝!

### 세계 최초 친환경 대체연료 해상테스트베드 개발 순항



선박의 다양한 친환경 연료시스템을 시험·실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선박(해상테스트베드)이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2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 시설인 친환경 대체연료 해상테스트베드의 용골거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친환경선박 해상테스트베드 구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관하에, ㈜KTE,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앤디 등 민간기업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개발하고, 건조는 목포시 소재 기업인 ㈜한국메이드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선급의 검사 및 시험운항 등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친환경 선박 기자재와 대체연료의 실증 및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영광군은 지난 22일, 25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민·관 합동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군, 영광군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와 함께 공공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합동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했다.

주요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반조 및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2023년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57건으로 대부분이 생활불편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물건 등



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검검과 장애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영암진로진학센터, 개소식 열고 학생·학부모 특강

### 지역 학생 진로진학 경쟁력 강화 취지, '1:1 맞춤형 입시상담' 등 진행

영암군이 21일 지역 학생들의 진로진학 경쟁력을 강화할 진로진학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역 특성과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맞춤형 진로·진학·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생겼고, 이날 개소식에 앞서 이날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의 주요프로그램은 ▲1:1 맞춤형 입시상담 ▲평사 초청 입시설명회 ▲고교학점제 바로알기 특강 ▲학부모아카데미 등이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고교학점제 대비 내 자

녀 대입 지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다. 특강에서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역임하고, TV드라마 <SKY캐슬>의 임시강사 실존 모델로 알려진 진동섭 강사가, 영암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의 진로진학 고민을 해소해줬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받게 하고, 진로진학 정보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